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금주의 공급망 Insight



제50호 특별기획

| 특별 기고

- 조상현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구독자 후기

- 공급망 뉴스레터, 이렇게 활용했어요 !

| '22~'23년 한눈에 보는 공급망 인사이트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법안, EU】 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곡물, 러-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연장

【코발트, 중국】 중국, 글로벌 코발트 공급통제 강화 태세

【전기차, 미국】 테슬라, 전기차 모터에서 희토류 제외 계획 발표

【IPEF, 미국】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2차 공식협상 개최

【정상회담, 미국·EU】 美-EU,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공동성명 마련

【배터리, 미국·EU】 폭스바겐, 캐나다 온타리오에 배터리 공장 설립 발표

【광물, 러시아】 러, 알루미늄·팔라듐 광물 수출 무기화 우려

【경제, 미국】 美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조치

공급망 뉴스 더하기

① 美 바이든 정부 2023년 통상정책 의제 발표

② 美 의회, 대중경쟁 법안 발의 본격화

공급망 전문가

「러-우 전쟁 1주년, 주요국 영향 분석」 2편

공급망 소식통

인터배터리 2023 탐방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특별기고]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제50호를 맞이하며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가 50호를 맞았습니다. 2022년 3월 3일 발간된 1호를 시작으로, 저희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매주 엄선된 국내외 공급망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을 독자 여러분께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1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업인 및 각계각층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매주 15만 개 이상의 기업에 발송되고 5천명 이상의 구독자가 찾는 국내 유일의 공급망 전문 뉴스레터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전 세계는 유례없는 공급망 위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난과 중국의 봉쇄조치, 러-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미·중간 패권 경쟁은 공급망의 진영화와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시대적 흐름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통적 제조 공급망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육성과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내걸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리튬, 니켈,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이 강조되는 한편 자원민족주의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바라보는 시각도 기업의 효율적인 생산·유통 프로세스 관리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지속 성장 기반 확보라는 안정성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무역과 통상의 제반 이슈가 공급망 문제로 귀결되면서 상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에 힘입어 확장을 거듭해온 글로벌 공급망이 본격적인 재편의 시기를 맞으면서, 우리 기업들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의 공급망 관련 이슈들은 민·관 모두 단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 무역협회, 코트라 3개 기관과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들이 힘을 합쳐 작년 2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출범시켰고,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발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에너지경제연구원도 함께 〈인사이트〉 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유관기관에서도 기고를 통해 주요 공급망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50호 발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문 명칭을 기존 'Global Value Chain'에서 'Global Supply Chain'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제 안보에 중점을 둔 공급망(supply chain)이 현재 우리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독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공급망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과 애로, 건의 등을 널리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뉴스레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50호 발간을 기념해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를 반영하여 읽기 쉬우면서도 깊이있는 분석이 담긴 뉴스레터로 거듭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 속에서 정부와 기업은 2인 3각 경기처럼 신발끈을 묶고 같이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와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도 전문적인 분석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레터 구독자 후기

◆ 뉴스레터 제작팀은 인사이트 발간 50호를 맞아 지난 3월 8일부터 10일간 **구독자 후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200여** 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구독자분들이 애정이 어린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기 중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최고의 후기(1~3등)로 선정되신 30분께는 다음 주 중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이렇게 활용했어요!



회계법인, 김OO 님

“자문 업무에서 사업 리스크를 판단할 때, 방향을 잡는 자료로 활용해요. 이번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설명 부분은 재가공하여 팀원들과 산업 스터디를 했어요. 고객분들께 CHIPS Act, IRA 등의 영향에 따른 수급 및 운영 리스크에 대해 알려드릴 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친환경설비, 김OO 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저희 기업이 영향을 받는 제도라 전 직원들이 숙지해야하는 사항이에요. 최근 CBAM 외에도 현업을 수행하면서 깊이 알기 어려운 제도, 정책, 산업에 대한 내용을 흐름에 따라 핵심만 간추려 정리해 주셔서 사내 직원들에게 링크로 공유해 회람하고 있어요.”



식품제조, 성OO 님

“식품회사의 전략구매팀 총괄을 맡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장 먼저 '글로벌공급망 인사이트'를 확인해요. 매월 진행되는 구매전략회의(시황, 선물시세, 주요 현안 등) 기본 내용 외에도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대학생, 임OO 님

“매주 공급망 관련 이슈들을 접하며 연구 주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있어요. 공급망 인사이트 마지막 페이지에 올라오는 컨퍼런스 관련 정보를 찾아 종종 온라인으로 참여해요.”



전자, 김OO 님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면접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추천해주었고, 이 자료로 스터디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던 기업에 잘 입사할 수 있었어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이런 점을 칭찬해요!



대학원생, 조OO 님

“급변하는 지정학적 흐름 속에서 팩트에 집중할 수 있게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또한 이슈를 해석하고 식견을 넓히는 데도 유용해서 지속적으로 챙겨보고 있어요.”



D사, 김OO 님

“최근의 국제 정세와 공급망의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줘서 매번 꼼꼼히 읽고 있어요. 지역별로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서 각 해외 지사별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돼요.”



S사, 김OO 님

“미국, 중국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평소 정보를 접하기 힘든 국가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해주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대학생, 임OO 님

“내용이 특정 산업,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에 좋아요. 매주 공급망 인사이트를 읽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슈들, IRA 같은 미국의 규제가 어떻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기타 응답

- 글로벌 공급망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해 핵심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 일일이 찾기 힘든 공급망 관련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 세계 경제, 무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응답

- 단순 기사 스크랩, 요약이 아니라 꼭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정리를 해준다는 점이 특히 좋아요.
- 다른 분야의 기초 지식도 알 수 있어서(예를 들면 LME 관련 내용 등) 신입사원 교육용으로 아주 유용했어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이렇게 해주세요!



김OO 님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 과거 패권전쟁 시 공급망을 통한 견제 사례, 공급망의 변화 전망 등에 대한 칼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급망 관련 전문가 분들의 칼럼이나 기고가 더 많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김OO 님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나, CRMA 등 약어의 풀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호별로 기사 제목들만 모아두는 엑셀이나 공지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내용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M사, 김OO 님

“보다 많은 산업과 품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또한 지역별로도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면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공급망 이슈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사 김OO 님

“국내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분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가볍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있는 내용을 작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화이팅!”



기타 응답

- 내용이 많다 보니 다 못 읽을 때가 있는데 영상으로도 제작 부탁드립니다.
- 각 호별 주요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뉴스레터 발간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문가 대담 등 오프라인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기타 응답

- 본문 부문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 폰트 크기를 키워주세요.
- 관련 기사들의 링크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 지금도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계속 연재 부탁드립니다!

22-23년

한 눈에 보는 공급망 인사이트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50호를 맞이하여 창간부터 현재까지 공급망 이슈를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공급망 충격, ● 국가별 대응, ● 공급망 관련제도와 단체, ● 산업 동향, ● 품목 분석, ● 참고 등 색깔별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해당 인사이트를 찾아보시면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2022
인사이트 창간

2월

- 러, 우크라이나 침공
- EU, 대러 경제 제재

3월

- 중국 코로나 확산, 봉쇄조치(3,5호)
- 해외직접제품규칙(2호)
- 누적원산지규정(5호)
-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6호)
- 알루미늄(1호), 니켈(4호)
- 반도체 GVC, 공급과잉(6호)

4월

- 미국 대중견제법 추진(10호)
- 자원, 에너지 부국 호주(7호)
- 무역조정지원제도(7호)
- GVC의 성장과 재편(7호)
- 중국 핵심광물 매장, 생산(9호)
- 원자재(에너지, 농산물, 금속) 시리즈(7~11호)
- 희토류(9,10호)
- 무연탄과 유연탄(10호)

11월

- EU 자동차 CO2배출규제 합의 완료 미국의 입법절차(37,38호)
- 사우디-네옴스마트시티(36호)
- 반도체 장비 동향(36호)
- 배터리 스와핑 산업(38호)

10월

- 미국 대중반도체수출통제안 발표(31호)
- 미국 인프라법-배터리지원계획발표(34호)
- 인코텀즈(33~35호)
- 원자력 발전 동향(32,33,36호)
- 수소 공급망(29~31호)
- 리튬 GSC와 채굴, 제련(30,32호)

2023

12월

- EU 배터리법 합의 완료
- EU 반도체법(40호) 논의 중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최종 합의(45호)
- '22년 공급망 이슈 정리(41호)
- 공급망 실사 대응 가이드(40호)
- 전력도매가격(39호)
- 석유산업(40~42호)

1월

- 중국 단기비자 일시 발급 중단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추가지침 공개(42호)
- EU 역외보조금규제 발효
- '23년 한-미 공급망 현안(43호)
- 석유·금속 비축(43,44호)
- EU의 대러 에너지 수입(44호)
- 핵심광물 이슈와 확보전략 (42~44호)

5월

- 러, 가스 수출규제
- 미국 인프라법 발효
- 일본 경제안전보장법 통과(8호)
- 납품단가조정가이드북(13호)
- IPEF 및 경제협력단체(13호)
- 팜유(12호)
- 배터리(13호)
- 우라늄(14호)

6월

- 미국 외항해운개혁법 통과(27호)
- 미국의 수출통제시스템(17~19호)
- 런던금속거래소(16,17호)
- 세계, 중국의 전기차 동향(15~16호)
- 중국 반도체 산업(18호)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18호)
- 니켈 GSC 분석(19호)

9월

- 한국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발의(28호)
- EU 단일시장간접조치 추진(29호)
- 사업재편 지원제도(28호)
- 배터리 재활용(28~30호)
- 핵심광물의 개념과 동향(27호)

8월

- 미국 반도체지원법안 통과(28호)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 통과(33호)
- 납품대금연동제(24호)
- 선박과 운임지수(25~27호)
- 방위산업과 공급망(23,24호)
- 가격과 환율의 경제적 영향(23호)
- 배터리 규제와 배터리 여권(26호)

7월

- 일본 경제안전보장법 일부 기본지침 발표
- EU 탄소노미(20호)
- 중국의 태양광 산업(20호)
- 원자력 발전(21호)
- 철강 생산방식(20,21호)
- 배터리 재활용 기술(22호)

2월

- EU 국가보조금 승인기준 개정(44호)
- EU 그린딜-산업계획 초안 발표(45호)
- 기술특례상장(46호)
- 이중과세(47호)
- EU의 '23년 에너지 정책(46호)
- 반도체 공급망재편 기회(46~48호)
- NdPr(47호)

3월

- 미국 반도체지원법-보조금 계획 발표(49호)
- 미국 인프라법-배터리 보조금 신청(49호)
- EU 핵심원자재법 초안 발표(50호)
-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48호)

- 공급망 충격
- 국가별 대응
- 공급망 관련 제도와 단체
- 산업 동향
- 품목 분석
- 참고

○ 최신 GVC 해외 이슈

■ 【법안, EU】 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 EU 집행위는 3.16일(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CRMA)·탄소중립산업법(NZAI)' 초안을 공개
 - **핵심원자재법(CRMA)**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30년까지 EU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30년까지 EU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10% 이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 마련 방침
 - * '전략적 원자재'는 핵심 원자재 중에서도 구리·코발트·망간·니켈 등 16가지를 따로 선별, 중국에서 채굴·가공된 것이 다수 포함
 - **탄소중립산업법(NZAI)** 초안에는 태양광·배터리·풍력발전·탄소 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30년까지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
 - *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
- 발표된 초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
 - 다만, 핵심원자재법에는 공급망 리스크 방지를 위해 역내 대기업에 대해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폴란드·헝가리 등에 생산공장을 둔 국내 배터리 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 발표된 법안은 초안으로 구체적인 지원책과 강제 요건은 포함되지 않아 이후 입법 과정에 약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

출처: 연합뉴스(23.3.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3.3.17)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곡물, 러-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연장 발표

- 지난 18일, 러시아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연장에 합의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작년 7월 UN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 해상운송을 하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내용임
 -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가 3개 항구에서 수출을 지속함에 따라 45개국 대상으로 약 2,500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과 식용유가 수출된 것으로 추산됨
 - 이 협정은 작년 11월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어 18일(토) 만료 예정이었으나, 러-우 양국의 반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20일이 연장되는 협정임
 - 러시아는 이전 연장 기간의 절반인 60일만 추가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작년 7월 최초 합의문의 연장기간이 최소 120일이라는 근거를 들며 120일 연장을 주장
- 러-우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만료일인 지난 18일 가까스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연장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연장기간을 밝히지 않음
 -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금주 초 UN에 보냈던 편지를 게시하며 "러시아 식품과 비료의 세계시장 유입을 차단하지 않으려는 '눈에 보이는 진전'이 있을 때만 60일 이상 연장할 용의가 있었다." 주장
 - 한편, 우크라이나의 쿠브라코우 인프라부 장관은 SNS 계정을 통해 이번 연장기간이 '120일'이라고 밝힘

출처: FT(23.3.19)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코발트, 중국】 중국, 글로벌 코발트 공급통제 강화 태세

- 전기차 배터리 핵심 금속 가격이 생산량 급증으로 인해 **32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여, 중국이 코발트 공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태세임
 - 영국에 본사를 둔 코발트 무역업자인 다톤 코모디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년 동안 중국의 코발트 생산 비중은 현재 44%에서 증가하여 세계 생산량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정제 활동은 2022년 14만톤으로 5년 전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준에 이른 반면, 나머지 국가에서 처리된 물량은 4만 톤 선에서 정체되어 **중국이 정제능력에서 77%의 세계 점유율을 차지하게 됨**
- 2022년 전세계 코발트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또는 35,000톤 증가하였으며, 이에 공급 급증세가 수요 증가의 2배를 넘어 가격 붕괴로 이어짐

*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의 증산의 영향과 더불어 코발트는 구리나 니켈 광산의 부산물로, 가격이 하락해도 공급이 쉽게 줄지 않는 특성으로 공급 급증

- 중국 낙양몰리브덴(CMOC)은 전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15%를 차지하는 텐케 풍구루메 광산에 쌓여있는 수산화 코발트 반제품 수출을 위해 콩고 국영광산기업 게카마인스(Gecamines)에 대한 로열티 지급 협상을 시행 중
- 이 협상이 성사되어 광산에 있는 물량이 한번에 국제시장에 나온다면 코발트 가격은 수직 하락할 수 있음

출처: CNews('23.3.9), FT('23.3.13)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전기차, 미국】 테슬라, 전기차 모터에서 희토류 제외 계획 발표

- 테슬라는 지난 3월 1일 개최된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희토류 없는 영구자석전동기 개발 및 상용화 계획 발표
 - 영구자석 전동기는 고정자에 있는 코일과 회전자에 있는 영구자석 사이의 인력과 척력으로 회전자가 돌아가는 구조로, 높은 출력과 효율을 위해 희토류인 **네오디뮴**이 들어간 자석을 사용함
 - 테슬라가 '희토류가 없는 영구자석 전동기' 개발에 성공하면 주요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존 영구자석 전동기의 장점을 이어갈 수 있음
- 일각에서는 아직 테슬라가 희토류 대체재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출처: 블룸버그('23.3.1) 및 elecrek('23.3.1)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IPEF, 미국】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2차 공식협상 개최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2차 협상 개최(3.13~19)
 - 제 1차 협상('22.12월)에 이어, 4개 의제(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전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실무협상 및 수석 대표 회의 진행
 - *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한국을 포함한 14개 인도-태평양 국가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의 분야(Pillar)에 대한 포괄적 경제협력체 구축을 목표로 '22.5월 출범 공식 선언
- 이번 협상에서 IPEF 14개국은 1차 협상 및 특별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논의의 진전을 모색
 - **(무역)** 1차 협상 이후 디지털·무역 원활화·노동·환경·농업·경쟁·투명성·포용성·경제협력 등 9개 세부 분야간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논의 방향 구체화 예정

-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인도 특별 협상 라운드(23.2월)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안 별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 진행 예정
- 미국이 표방하는 '근로자 중심'(Worker-Centric) 무역 모델 관련 모니터링 필요성 증대
 - 美 대중 경쟁 정책 동향과 IPEF 협상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우리기업의 기회요인을 살피는 것이 필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3.3.13)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정상회담, 미국·EU】 美-EU,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공동성명 마련

- 3.10일 美 바이든 대통령과 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美-EU 정상회담에서 IRA, 철강 관세 문제 등 주요 통상 현안 논의 후 공동성명 마련
 - (IRA·공급망) 3월 말 美 IRA 이행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는 역내 채굴·가공된 광물이 美 세액공제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핵심광물 협정' 관련 협상 착수
 - (보조금 지원) '청정에너지 보조금 대화(Clean Energy Incentives Dialogue)' 개설, 보조금 지급에 따른 美-EU 통상마찰을 피하고 청정에너지 경제·산업 구현을 위한 상호 합의 표명
 - (GASSA*) 10월까지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타결 목표로 협상 지속 중이며, 합의 시 저탄소 생산 및 교역 촉진 기대
 - * GASSA(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 : 역외국의 비시장적 철강·알루미늄 품목 과잉공급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로, 뜻이 맞는 국가 간 협력 통해 △철강·알루미늄 시장 모니터링 △동 산업 내 무역구제 및 세관 분야 협력 △비시장 과잉생산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이 외에, 美-EU는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 견제, 對러 제재 및 에너지 의존 감축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美-EU TTC 및 G7 차원의 공조를 통한 규칙 기반의 국가적·경제적 안보 강화 협력을 약속
출처: European Commission(3.10)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배터리, 미국·EU】 폭스바겐, 캐나다 온타리오에 배터리 공장 설립 발표

- 3.13일 로이터통신은 폭스바겐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북미지역 첫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보도
 - 신규 공장의 구체적인 규모와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폭스바겐 이사회 멤버 토마스 슈말은 지난해 8월 북미지역 첫 배터리 공장은 20기가와트시(GWh)의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폭스바겐은 동유럽 배터리공장 건설을 보류하고,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고려해 캐나다 온타리오에 기가 팩토리* 건설 계획 확정
 - * 해당 공장은 폭스바겐의 배터리 자회사 PowerCo 공장으로 '27년부터 생산 예정
 - 폭스바겐은 북미 공장 건설 시, IRA에 따른 보조금 및 대출 수혜 규모를 90~100억 유로(약 14조 원) 규모로 추정
 - 노스볼트(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도 미국에서 수령 가능한 보조금 규모가 80억 유로 이상이라며, 차기 공장을 독일이 아닌 미국에 건설할 수 있음을 언급
- 美 IRA 보조금 지원으로 주요 기업들이 EU 역내 투자를 재고하면서, 테슬라·노스볼트·이탈볼트 등 기업의 계획 변경 시 EU 주요 배터리 생산 확대 계획에 차질 전망
 - 리튬배터리 생산에 대한 전 세계 투자 내 EU 점유율이 '21년 41% → '22년 2%로 하락한 반면, 對미·중 투자는 지속 상승
출처: 서울경제(3.14)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브뤼셀무역관 종합

■ 【광물, 러시아】 러, 알루미늄·팔라듐 광물 수출 무기화 우려

- 3.9일 美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Citigroup) 연구진은 “러시아가 알루미늄·팔라듐 등 국제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금속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자원무기화 전략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
 -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 침공 초반 알루미늄 수출 제재를 검토했으나, 국제시장에 줄 타격을 우려해 제재대상에서 제외
 - 다만, 미국은 3.10일부터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對러 제재를 위해 러시아産 니켈·팔라듐까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
- 씨티그룹 연구진은 러시아가 美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광물 감산에 나설 경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
 - 알루미늄은 비행기 소재, 가전제품, 포일, 주방도구 등 여러 제품에 사용되며, 러시아産 알루미늄은 글로벌 거래량의 약 15%를 차지
 - 팔라듐은 차량 배기가스 제한 장치에 사용되며, 러시아産 팔라듐은 글로벌 거래량의 약 25%를 차지
 - 일부 서방 기업은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타격을 막고자 러시아산을 대체할 자원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서 비(非)러시아산 알루미늄과 니켈 가격이 뛰는 현상도 발생

출처: 아시아경제(3.9), 연합뉴스(3.10)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경제, 미국】 美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조치

- 캘리포니아 금융규제 당국,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불불능을 이유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및 자산 몰수 발표(3.10)
 - 동 사태는 ① 미국 고금리 충격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② 단시간 내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③ 직전 가상화폐 전문은행 파산으로 인한 신용경색에서 기인했다고 평가
 - 지방은행의 예금인출능력에 대한 불신도 함께 증폭되면서 혼란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뉴욕주 금융규제 당국은 시그니처은행(SBNY) 폐쇄 발표(3.12)
- 美 재무부는 폐쇄된 SVB와 SBNY 예금 전액에 대한 보호조치를 발표, FRB도 이에 발맞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금융기관 대상 유동성 지원 계획 발표(3.12)
 - 재무부, FRB,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공동성명을 통해 예금보험 가입여부·한도와 무관하게 유치된 예금전액 보증 계획 발표
- 주요 언론에 따르면, 아시아권 은행은 금리인상기에 타격이 큰 유가증권 보유 비율이 낮고, 아시아 경제는 금리 인상을 상당기간 유보*하는 중이기 때문에 SVB 붕괴가 아시아권 은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가운데 중국은 7개월 연속 금리 동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유지

- 다만, 미 금리를 결정하는 FRB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정책과 은행 유동성공급을 위한 확장정책 중 어떤 선택을 할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출처: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공급망 뉴스 더하기 ① : 美 바이든 정부 2023년 통상정책 의제 발표

-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가 담긴 '2023년 통상정책 의제 및 2022년 연례보고서(2023 Trade Policy Agenda and 2022 Annual Report)'를 발표(3.1)하였다. 연례보고서의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우선순위를 통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해보자.

美 바이든 정부 2023년 통상정책 의제 발표

- '22년 바이든 통상정책과 유사한 △우방 협력 강화, △노동자 중심 무역, △기후변화 대응 국제 공조, △미-중 무역 관계 조정 등 키워드 제시
- '21년부터 의제에 포함된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이 목차에서 최상단으로 격상,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제는 제외됨

* 무역법(163조)에 따라 USTR은 매년 당해 대통령 통상정책 방향과 전년도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22년~'23년 통상정책 의제 목차 비교〉

2023년	2022년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	노동자 중심 무역 기조
노동자 중심 무역 기조	탈탄소화 가속 및 기후변화 대응
탈탄소화 가속 및 기후변화 대응	미국 농업 지원·육성
미국 농업 지원·육성	공급망 탄력성 강화
공급망 탄력성 강화	코로나19 위기 극복
미중 무역 관계 조정	미중 무역 관계 조정
무역정책 신뢰 증진	주요 무역 파트너 및 다자간 협력
공정 경제 및 포용성 강화	무역정책 신뢰 증진
(제외)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정경제 및 포용성 강화

주요 내용

교역 파트너와 협력 강화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	탈탄소화 경제 달성을 위한 무역의 역할	공급망 탄력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최우선 과제로 인도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주 파트너십, 대만·케냐와의 이니셔티브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3국 무역협정(USMCA)을 필두로 노동자 우선 무역 정책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친환경 목표를 발전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新무역 정책 중요성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취약성 지적, 탄력적 공급망 시스템 유지 노력 강조
미-중 무역 관계 정립의 중요성 강조	집행 강화를 통한 무역 정책 신뢰 증진	공정하고 포용적인 무역정책 추진	한국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美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시장적인 관행 차단,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 및 환경 규제 준수 등을 통해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참여 보장,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공평·탄력적 경제 성장 실현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파트너이자 긴밀한 동맹국으로 평가 · 향후 공급망 문제, 지속 가능한 무역, 신형 기술,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등 협력 기대

공급망 뉴스 더하기 ② : 美 의회, 대중경쟁 법안 발의 본격화

◆ 美 상·하원 산하 위원회는 2.28 中 공급망 위협을 우려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정찰풍선 등 사태로 반중 여론이 확산되자 중국을 압박하는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중 美 하원이 심사한 주요 대중경쟁 법안을 자세히 알아보자.

美 대중경쟁 법안 발의 현황

- 118대 하원, 중국특위 첫 청문회와 기타 상임위 대중 법안 심사 (2.28)
 - '23.1월 118대 의회 시작과 함께 신설된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첫 청문회 개최
 - 특별위원회의 첫 청문회 이후 같은 날 하원 외교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는 ① 中 국제적 지위, ②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③ 외교적 대만 지원, ④ 중국 금융시장 감시 등에 대한 법안을 발의

〈2.28 하원이 심사한 주요 법안〉

법안	발제위원회	주요 내용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반대법 (H.R. 1107)	외교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켜 국제기구 및 협상 등에서 개도국 특혜 박탈 • ① 미중간 통상에서 중국을 중진국이나 선진국으로 표기, ② 美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中 개도국 지위 박탈, ③ 中을 선진국으로 강제 격상하는 방안 추진 • 국무부가 제정 이후 180일 이내 하원 외교위원회에 美 中이 가입한 국제기구 중 중국이 개도국 지위로 얻는 혜택 조사와 지위 재조정 심사를 위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 	
미국의 기술적 적대자 방지법 (H.R. 1153)	외교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 외교위원회 의장은 중국이 틱톡을 이용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 • 미 의회는 동 법안을 통해 행정부에 틱톡 및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추후 중국산 '스파이 벌룬' 사태를 막는 조치라고 설명 • 중국산 애플리케이션 직접 규제 외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제3자 제재 방안도 언급 	
대만에 대한 외교적 지원 (H.R. 540, 554, 803)	금융서비스위원회	2023 대만차별금지법 (H.R. 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대만의 IMF 회원가입, ② IMF의 정기적 금융 활동 감시 및 정책 참여 독려, ③ 대만 국민에게 IMF 취업 기회 제공, ④ 대만 금융 기술 지원 명시
		2023 대만분쟁억지법 (H.R. 5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대만에 강압적 외교 행동 시, 중국 지도층의 자산 공개와 지도층과 가족에 금융 서비스 차단
		대만보호법 (H.R. 5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재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제 금융 그룹과 연계하여 중국이 대만 무력 개입 시 중국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격리하는 권한 부여
中 금융시장 감독 및 규제 강화 (H.R. 510, 839, 1156)	금융서비스위원회	2023 중국통화책임법 (H.R.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장관은 IMF 집행기구와 협력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가치 상승을 막고, 특별인출권*의 가치 하락 조정 * 특별인출권으로 지정된 통화(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는 담보 없이 외화 대출 가능
		중국환율투명성법 (H.R. 8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환율정책 공개에 투명성 강화를 주문하고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을 중국의 비인도적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니셔티브 강화
		중국금융위험 완화법 (H.R. 1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가 중국의 국제 금융 정책이 미국의 영향력에 미치는 위험 조사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권고하고 복원력 촉진을 지시

공급망 전문가 : 「러-우 전쟁 1주년, 주요국 영향 분석」 2편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도원빈, 최수빈

◆ 지난 49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및 주요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50호에서는 러-우 전쟁이 세계 원자재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자.

〈 러-우 영향 시리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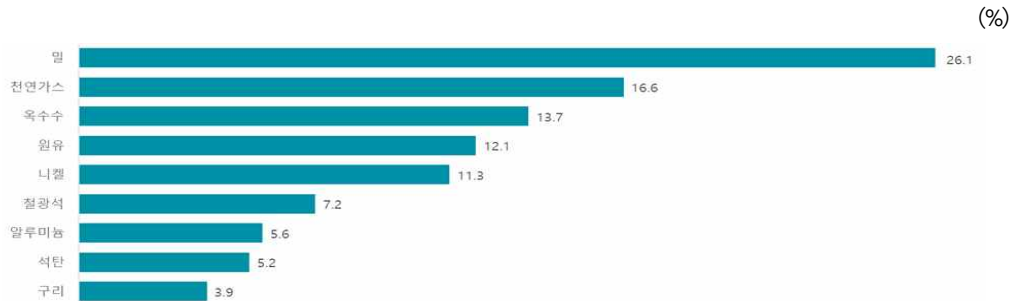
(49호) 경제적 영향

(50호) 원자재 영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유, 천연가스, 금속, 곡물 등 다양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임

- 러시아·우크라이나는 밀(세계 공급의 26.1%), 천연가스(16.6%), 옥수수(13.7%), 원유(12.1%), 니켈(11.3%) 등 주요 원자재 생산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

〈 주요 원자재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세계 공급 비중 〉



자료 : BP(에너지), USGS(금속), USDA(곡물)

전쟁 발발 이후 2022년 세계 원유 공급량이 당초 전망 대비 1.5% 감소

- 러-우 전쟁 이전('22.2월 기준)에는 2022년 세계 원유 공급량이 일평균 101.4백만 배럴로 전망되었으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감소하면서 2022년 실제 일평균 공급량은 1.5% 감소한 99.9백만 배럴에 불과
- 지역별로는 러시아가 속한 구소련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 당초 전망 대비 6.1%로 감소하면서 세계 원유생산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러-우 전쟁 전후 글로벌 원유 생산량 〉

(백만배럴/일)



자료 : EIA STEO

주 : 당초 전망은 '22.2월 기준, 실제 추이는 '23.2월 기준

〈 2022년 지역별 원유 생산량 〉

(백만배럴/일, %)

지역	당초 전망 (A)	실제 추이 (B)	차이(%) (A-B)/B
OECD	32.9	32.3	-1.8
OPEC	34.2	34.2	0.0
구소련	14.7	13.8	-6.1
중국	5.0	5.1	2.0
기타	14.6	14.5	-0.7
세계	101.4	99.9	-1.5

자료 : EIA STEO

주 : 기존 전망은 '22.2월 기준, 실제 추이는 '23.2월 기준

2022년 중 원유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도 당초 전망 대비 큰 폭으로 상승

- (에너지) 2022년 원유와 천연가스 평균가격은 전쟁 이전 전망 대비 각각 29.1%, 70.1% 상승
 - 천연가스 가격은 당초 전망(3.84달러/MMBtu) 대비 70.1% 상승한 6.54달러로 지난해 내내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나 최근 들어 하향 안정 추세

〈 원유 가격 〉

(달러/배럴)



자료 : Bloomberg, 브렌트유 기준

〈 천연가스 가격 〉

(달러/MMBtu)



자료 : Bloomberg, 헨리허브 기준

- (금속) 니켈가격은 당초 전망 대비 34.6% 상승한 반면, 알루미늄 가격은 상승폭이 3.7%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 니켈 가격 〉

(달러/톤)



자료 : Bloomberg, LME, 3개월 선물 기준

〈 알루미늄 가격 〉

(달러/톤)



자료 : Bloomberg, LME, 3개월 선물 기준

- (곡물) '유럽의 빵바구니' 우크라이나의 재배지 훼손, 수출항 폐쇄로 밀과 옥수수의 2022년 평균가격이 당초 전망 대비 각각 19.7%, 24.0% 상승

〈 밀 가격 〉

(센트/부셀)



자료 : Bloomberg, LME, 3개월 선물 기준

〈 옥수수 가격 〉

(센트/부셀)



자료 : Bloomberg, LME, 3개월 선물 기준

○ 공급망 소식통 : 인터배터리 2023 탐방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3) 개요]

- 일시/장소 : '23.3.15(수)~17(금) / 코엑스 A, B, D홀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자산업협회, KOTRA, 코엑스
- 개요 : 국내 최대, 세계 3대 배터리 전문 전시회 ('23년 11회차)
- 전시품목 : 이차전지, 커패시터, 소재 및 부품, 제조기기, 검사/측정장비,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ESS
- 예상규모 : 500개사 1,500부스 ('22년 198개사 664부스) / 50,000명 ('22년 41,020명)

■ 인터배터리 2023(InterBattery 2023)이란?

- '13년 처음 개최 후 이차전자산업의 성장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매년 30% 가까이 성장하며 국내/외 이차전자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포스코케미칼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InterBattery는 500개사 1,500부스 50,000명 이상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

■ 전시 품목

품목	세부 품목
이차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 니켈 카드뮴 배터리, 공기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니켈수소전지, 기타 충전 배터리 및 저장기술 등
커패시터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전해 커패시터, 리튬 이온 커패시터, REDOX 커패시터 등
소재 및 부품	양극재료, 음극재료, 전해질, 분리막, 집전장치, 기압환기구, 전극포일, 절연튜브, 활성화탄소, 이온액체, 수소 흡장 합금 등
제조기기	전극제조장비, 믹서, 코팅장비, 화학증착장비, 건조설비, 압축가공기, Slitter/Cutter/Stamping 장비, 권선기, 조립장비, 절연기 등
검사/측정장비	충방전 테스트 장비, Impedance Measuring Equipment, Filing Measuring Equipment, 절연계, Life Tester 열화 시험장비, 안전측정 장비 등

■ 인터배터리 2023, K-배터리 첨단기술 선보여

- (삼성SDI) BMW 뉴 i7, 국내 최초 첫 대형 전기트럭 볼보 'FM 일렉트릭' 실차 전시
 - 'BMW 뉴 i7'에는 삼성SDI의 P5 각형 배터리, 'FM 일렉트릭'은 2170 원통형 배터리 2만 8천여개 탑재되었으며, 니켈 함량 91% 하이니켈 양극재 적용
- (LG에너지솔루션)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포드 머스탱 마하-E,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모터스의 프리미엄 세단 루시드 에어 시승 체험 제공
 - LFP 배터리 셀과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공개, 자유자재로 구부러지는 프리폼(Freeform) 배터리와 가상현실(VR) 고글에 사용하기 위해 휘어지도록 만들어진 커브드(Curved) 배터리 전시
- (SK온) 현대차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 eGV70 실차 전시
 - 각형 배터리, LFP, 코발트 프리(Co-Free)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공개
- (포스코케미칼) 광산에서 원료를 조달해 소재 생산, 사용 후 재활용까지 고유 밸류체인 구현 모형 전시
- (고려아연) 배터리 재료 채굴부터 '제련→양극·동박 생산→배터리 셀의 배터리 가치사슬' 대형 모형 전시

인터배터리 2023 주요 프로그램

- (더배터리 컨퍼런스) 전지 산업 전문가 초청하여 향후 전지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폐배터리 시장, 세계 전기차 시장 전망 등 현재 배터리 산업 트렌드를 파악할 기회 제공
- (세미나) 참가업체 세미나, 유무선 충전기술 세미나, 글로벌·호주 배터리 광물 세미나, 배터리 해외시장동향 세미나, 배터리xEV 토크 콘서트, 전기차 배터리 혁신 기술 세미나, 미국 전기차 배터리 포럼 등
- (이차전지 글로벌 파트너링·잠재 공급선 발굴 상담회) 이차전지 주요 바이어와 국내기업 간 1:1 상담 추진 및 이차전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소싱 상담 진행
- (배터리 잡페어) 이차전지 산업 인력 양성, 유관 분야 기관과 기업에 우수 인력 탐색 및 확보 기회 제공



InterBattery 2023 개막식



컨퍼런스/포럼/세미나



이차전지 글로벌 파트너링/잠재 공급선 상담회



기업별 전시회 부스

인터배터리 2023 유럽 개최 안내

- ▶ 일시/장소 : '23.6.14(수)~16(금) / 독일 메세 뮌헨(Messe Munchen)
-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지산업협회, KOTRA, 코엑스
- ▶ 전시품목 : 이차전지, 커패시터, 소재 및 부품, 제조기기, 검사/측정장비
- ▶ 예상규모 : 200개사 650부스
- ▶ 프로그램(잠정) : 더 배터리 유럽 컨퍼런스, 1:1 비즈니스 매칭, 참가업체 세미나, 네트워킹 데이 등
- ▶ 홈페이지 : www.interbattery.or.kr

글로벌 경제지표(22. 3. 22. 수)

[환율]

구 분	'21말	'22.말	'23.2말	3/20	3/21	3/22	전일비	22말비
₩/U\$	1,188.80	1,264.50	1,322.60	1,310.50	1,311.20	1,307.70	△0.27	3.42
선물환(NDF,1월물)	1,190.00	1,265.30	1,322.20	1,308.00	1,308.30	1,304.90	△0.26	3.13
₩/CNY	186.51	181.44	190.72	189.26	190.86	189.96	△0.47	4.70
₩/Y100	1,032.48	945.56	970.50	997.49	997.79	987.61	△1.02	4.45
Y/U\$	115.14	133.73	136.28	131.34	131.41	132.41	0.76	△0.99
U\$/EUR	1.1318	1.0617	1.0585	1.0663	1.0705	1.0770	0.61	1.44
CNY/U\$	6.3681	6.9630	6.9411	6.9002	6.8790	6.8883	0.14	△1.07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74.2원, (₩/¥100) 96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3.20(전일)	'23.3.21	전일비(3.20)	'22년최저比	'22년말比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70.31	73.74	3.4 4.9%	1.9 2.7%	△5.0 △6.4%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29.50	124.70	△4.8 △3.7%	45.2 56.9%	7.4 6.3%
비 철 금 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677.00	8,824.00	147.0 1.7%	1824.0 26.1%	437.0 5.2%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237.50	2,235.00	△2.5 △0.1%	155.0 7.5%	△125.5 △5.3%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2,675.00	22,550.00	△125.0 △0.6%	3450.0 18.1%	△7875.0 △25.9%

[반도체]

구 분	'21	'22	'22.12월	'23.1월	'23.2월	3/17	3/20	3/21	3월(~21)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2.05	1.93	1.83	1.70	1.70	1.69	1.73
(%, YoY)	29.9	△23.0	△40.3	△48.2	△52.9	△54.9	△55.0	△55.1	△55.1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53	6.51	6.46	6.41	6.41	6.40	6.43
(%, YoY)	14.7	10.7	△12.4	△13.7	△15.5	△19.3	△19.3	△19.5	△18.5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2.24	3.3	3.10	3.17	전주(3.4比)	'21년말比
운임지수	5046.66	1107.55	946.68	931.08	906.55	909.72	0.3%	△82.0%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2.24	3.3	3.10	3.17	3.21	전일(3.10比)	'21년말比
BDI	2217	1515	883	1211	1424	1535	1512	△1.5%	△31.8%



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한국무역협회(KITA) 공급망분석팀	장상식, 김경훈, 김희영, 박가현, 임지훈, 도원빈, 김나을, 최수빈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이병옥, 신재훈, 이윤지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미래전략연구팀	석주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피드백하러 가기 : <https://forms.gle/sftFKhLd4Xh49pxu9>

주관기관



협력기관

